

가람의 장면들

33

강화 정수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정수사는 작은 사찰임에도 독특한 구조로 입지의 공간적 미학과 윤리학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물 161호인 정수사 법당.

민족성산 지키는 소박한 암자

세계 올림픽의 성화를 그리스 올림픽이나 정상에서 채화하듯이, 전국 체육대회와 성화는 강화도의 마니산 함성단에서 태양빛을 모아 집화시킨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함성단은 바로 민족의 기원인 단군을 제사지내는 곳이고, 마니산에서 그래서 민족의 성산으로 숭상되어 왔다. 그러나 단군 설화는 함안쪽인 함안도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설화였고, 그 공간적 무대는 중앙 아시아인 동북부 중국 쪽이어야 했다. 한반도 중부에 있는 섬에, 그것도 해발 488m밖에 되지 못하는 낮은 산이 어떻게 단군의 성지가 되었을까?

우리 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 그러나 수도권에서 더러 하나도 연결된 가까운 섬, 강화도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때마다 민족의 정통을 지켜준 수호의 섬이었다.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20여 년을 버텨낸 것도 강화도의 절묘한 힘이었다. 그래서 이 섬은 실제 크기 이상으로 중요한 민족적 상징이 되었고, 마니산의 신화성 역시 그 역사적 결과는 아니었을까?

가람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법당'이라 부를까? 보통 가람의 법당들은 대웅전이나 극락전, 관음전 등의 건물 이름이 있고, 문화재 명칭도 그 이름을 따른다. 비단 정수사만 '법당'이라는 일반명사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수사는 규모도 작지만 위치도 마니산 높은 곳, 인가는 특별해진 곳에 자리잡았다. 큰 절이 아니라 암자가 자리잡은 위치요, 규모도 터다. 암자는 일반적으론 일반 재가신도들의 법회나 불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 몇분을 위한 생활터요, 수행처였다. 따라서 규모가 클 필요도, 건물이 많을 필요

'법당'이라는 명칭으로 미루어보아 정수사는 재가신도 대상의 절이기보다는 수행 중심의 암자 성격이 강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마니산 정상에 오르는 중요한 교통로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암자보다는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했을 것이다. 정교하게 지어진 법당 건물이 그 여력의 증거다. 그러나 본사가 많다고 해서 사치하지는 않았다. 법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지그마한 건물인데, 정면에는 뒷마루를 만들었으니 내부는 더욱 좁다. 법당 건물 앞에는 뒷마루를 놓은 것은 안동 개국사 원통전을 포함해 전국에 두 곳 뿐이다. 법당 앞에 뒷마루는 법당의 이미지를 소박하게 만든다. 장엄을 빼내야 할 큰 절의 법당에는 있을 수 없는, 서민적 공간요소다.

아담한 절벽 담장 법당위에 뒷마루 짝지붕 구조 독특

도 없었다. 암자의 건물들에는 뚜렷한 이름이 없다. 부처님을 모신 집이면 '법당', 스님들의 생활터면 '요사채'라 부르면 그만이다.

그나마 작은 암자에는 법당과 요사채가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 건물의 가운데 큰 방에는 부처님을 모셔 법당 공간으로 사용하고, 양 옆의 방들은 스님들이 거처하는 승방이 된다. 이러한 복합건물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절들에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스님 몇분이 거처할 암자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으려는 절제심의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당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는데, 마당 끝은 측대와 자연 절벽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서쪽 경계를 이루는 높지 않은 절벽은 장엄하기보다 아담하며, 웅장하기보다 친근하다. 마치 암석으로 만든 건물이나 담장과 같다. 서민적 형식의 법당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절벽이며 바위이다. 이 절벽(바위) 위에서 법당과 마당을 내려다보는 경치도 일품이다. 어쩌면 이렇게 건물과 마당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법당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따금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띈다. 건물 지붕의 앞면이 뒷면보다 긴, 짝지붕인 것이다. 지붕의 용마루(앞면과 뒷면이 만나는 가장 높은 부분)가 건물의 중심에 놓인 것이 아니라, 법당 내부공간의 4중의 끝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붕의 길이 가운데, 앞 1칸은 뒷마루가 있는 개방 공간이며, 뒤의 3칸이 법당 내부인데, 용마루는 바로 뒤 3칸의 중앙에 놓였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위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의 중앙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 건물은 바깥의 위용보다는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절묘함보다 내실함, 형식보다 핵심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암자의 공간적 미학이요 윤리적인 셈이다.

종교간 대화 '화두풀기' 활발



정신문화의 상징인 종교가 인류화합과 평화에 대한 창조적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8월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천여명의 세계 각국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종교를 초월해 인류평화를 논의하는 '밀레니엄 종교·영성지도자 세계평화정상회의'를 연 것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지구촌 분쟁해소 및 이를 위한 용서와 화해, 빈곤구제, 환경보존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생명존중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관용과 비폭력을 위한 사랑'이란 유엔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환경위기 극복 등 지구가 살아가기 위해선 절박한 정의를 위한 세계적 구상을 위한 초종교적 협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교단의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는 종교NGO들의 일관된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와 종교연합신도기구(URI)가 국내에서는 KCRP와 URI Korea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종교간 대화문화의 고개를 위해 크리스천아카데미가 대화문화아카데미로 확대 개편 되어 오는 26~30일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평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종교간 이해의 마당이 넓어지고 있다.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전통 종교의 종교NGO들은 범종교적 상징성으로 종교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 화합과 대비되는 교단개혁을 '교단을 그 종교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시켜 가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순 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불교 바로세우기 재가연대', '교회경신을 위한 실천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새시대를 여는 목회자 모임' 등 종교NGO들은 '종단 개혁', '교회 쇠신'(가톨릭), '교회 갱신'을 외치며 기성교단의 자정과 쇠신을 위한 교단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오후2시 서울 종로 5가 연강원에서 방북식을 갖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민홍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을 비롯 원불교 천도교 유교 KCRP 대표 등 주요종단 대표를 고문으로, 각 종교별 지도급 인사 200여명을 지도위원으로, 각 종교·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등 범종교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종교 화합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28일 '아셈 2000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가 서울 수운회관에서 개최한 워크숍. 최근 종교NGO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단 개혁과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KCRP 26~30일 종교청년 평화축제 종파초월 달라이라마 환영행사 준비 종단운영 투명화 등 내부개혁 운동도

이와 관련 19일 오후2시 서울 종로 5가 연강원에서 방북식을 갖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민홍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을 비롯 원불교 천도교 유교 KCRP 대표 등 주요종단 대표를 고문으로, 각 종교별 지도급 인사 200여명을 지도위원으로, 각 종교·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등 범종교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종교 화합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19일 오후2시 서울 종로 5가 연강원에서 방북식을 갖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민홍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을 비롯 원불교 천도교 유교 KCRP 대표 등 주요종단 대표를 고문으로, 각 종교별 지도급 인사 200여명을 지도위원으로, 각 종교·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등 범종교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종교 화합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바타 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苦人欲了知 三世一切法 一觀心造

아바타는 자신의 마음(심)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 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대 불교, 선(禪)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자기법 등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를 경험하신 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처님 집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바타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외에서 많은 코스 안내 경험이 있는 慧元, 해산, 적경 스님 등 많은 아바타 마스터들이 동참하여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주 회: 봉인사
▶홈페이지: <http://soback.kornet21.net/~bonginsa>
▶기간: 2000년 9월 16일 - 24일 (8박 9일)
▶참가비: 180만원 (숙식제공)
▶신청: 봉인사 한길정진원
T. (031)574-5585 / 529-5585 F. (031)574-0808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어서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악수물로 만든 악수 단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 받은 한 보살이 금공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나, 매주10가마나,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민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낫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원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특별가능)

금 용 시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금주리 신25-8
TEL: (031)533-4405 FAX: (031)532-3444

바로보인 환단고기

사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들 통하여 일어났던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초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통복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범악곡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새마을 복제로 세상을 복숭아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 634-5114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충청지사	042) 527-0559
울산지사	052) 257-7737
강릉지사	033) 643-5577
제주지사	016) 695-6885
진주지사	016) 585-2120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고성지국	055) 672-0078
일본지사	031) 713-5111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